

최근 유가동향과 향후전망

金 乾 治

〈석유협회 홍보이사〉

최근 국제유가가 성수기를 맞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승기조가 지속될 경우 기준유가가 금년중에 배럴당 21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년 4/4분기 석유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가 극심한 변동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성수기를 맞아 4/4분기중 유가가 소폭 상승한 것이나 러시아의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태도도 향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유가는 당분간 안정기조속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국제정세의 급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舊소련의 붕괴와 동서냉전체제의 종식,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정치, 경제관계로 인해 OPEC의 충만했던 「자신감」은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과거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에 보여주었던 시장지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따라서 OPEC는 세계적으로 석유의 존도가 70년대말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 장기적으로 시장세어를 무너뜨릴수 있는 유가의 과도한 변동이나 급등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제9차 OPEC감시위원회는 ①배럴당 21달러의 기준유가 회복을 위해 금년 4/4분기 OPEC산유량을 2,420만B/D로 결정하고 ②쿠웨이트의 석유생산 시설 복구에 따른 추가생산을 허용하며 ③OPEC회원국은 시장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생산수준에 관한 합의가 애매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종전의 「생산상한」(Production Ceiling) 또는 쿼타등의 명확한 용어 대신 의미가 불분명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라

는 용어를 사용, 실천의지의 약화로 풀이된다. 즉 회원국별 생산상한은 물론 OPEC 전체의 생산상한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회의 결과는 이란 영향력 확대에 대한 사우디의 견제가 그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쿼타(2,298만B/D) 동결을 주장하는 이란그룹과 실제생산수준(2,420만B/D)으로의 쿼타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우디그룹이 대립하였다. 개최전의 시장관측은 사우디가 이란 주장에 동조 내지 묵인함으로써 이란 주장이 채택될 것으로 보였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였었다. 지난 5월 총회에서는 사우디가 이란의 유가회복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유가 급등을 초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는 이란과 입장을 달리 하였다. 이번의 「시장세어」 개념도입은 생산상한 또는 쿼타배정등 논쟁의 쟁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사우디와 이란의 충돌을 피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사우디 주장이 반영될 것이다.

이번 OPEC 감시위의 결정은 사실상 OPEC의 쿼타체제 이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시장세어정책은 회원국들이 구속력없이 잉여생산능력을 최대한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OPEC는 이라크의 시장복귀 내지는 돌발변수들이 발생할 경우 다시 쿼타체제로 진입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기존의 쿼타체제에서도 쿼타위반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시장세어에서 쿼타체제로의 복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쿼타체제 복귀요인은 세계 석유수요, 회원국들의 생산능력등 많은 요인이 있어 쿼타체제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향후 사우디가 자국 중심의 석유정책을 지속할 경우 내년 1/4분기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오는 11월 92차 총회에서 유가인상 보다는 시장세

어정책을 그대로 추진할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 약세기인 '93년 2/4분기까지 연장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쿼타 설정과 이의 배정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약세를 감수하는 것이 사우디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 자신도 이라크가 석유시장에 복귀할때까지는 OPEC가 쿼타 체제로 복귀하기는 힘들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 직후 사우디의 나제르 석유장관은 이번 합의결과가 시장에 긍정적인 것이며 이란의 증산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는데 이는 사우디 정책의 일면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사우디의 진짜 의도는 금년 4/4분기 석유수요가 날씨및 선진국의 경기회복속도, 舊소련의 공급불안 등 불확실한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국별 산유쿼타를 설정함으로써 속박을 받는 것보다 구속력없는 시장세어를 설정해놓고 수급상황에 맞

춰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흑한등의 사태로 수요 증가폭이 클 경우 사우디는 잉여생산능력 및 보유재고를 활용하여 유가 급등사태를 막고, 난동등으로 수요 증가폭이 낮을 경우 현재의 감산추세를 지속함으로써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제석유시장은 4/4분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수급이 점차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난동이나 흑한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는 한 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4분기의 對OPEC 원유수요는 대략 2,550만B/D내의 (OPEC사무국 2,509만B/D, IEA 2,570만B/D)로 전망되기 때문에 4/4분기 석유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 예상되며 70만B/D내외의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될수 있다.

OPEC 원유 생산 실적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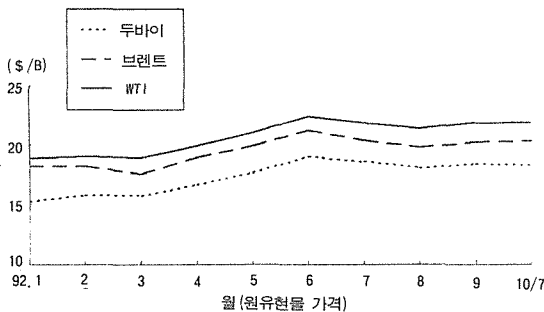
(단위 : 만B/D)

회 원 국	현 행 쿼 타	8월	4/4분기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788.7	830	840-850
이 란	318.4	340	340-350
쿠 웨 이 트	81.4	110	130-140
U A E	224.4	227	220-230
베 네 수 엘 라	214.7	225	220-230
기 타	670.8	703	700-710
計	2298.2	2345	2450-2510

원유 현물가격 추이

(단위 :

	1992.3	3	4	5	6	7	8	9	10/7
두 바 이	15.72	15.70	16.62	17.63	18.99	18.54	18.00	18.35	18.25
브 렌 트	18.15	17.51	18.88	19.88	21.19	20.33	19.76	20.20	20.33
W T I	18.98	18.89	19.96	20.96	22.39	21.80	21.31	21.83	21.88



이러한 수급분석을 근거로 하면 4/4분기의 국제유가는 이상난동이나 돌발적인 공급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그 결과 3/4분기보다 배럴당 1~2달러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가격 변동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OPEC 평균가격은 3/4분기의 배럴당 18~19달러에서 4/4분기에는 배럴당 19~21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